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외교 대외직접투자 (FDI)의 목적과 성과

전 황 수*

목 차

- I. 서 론
- II. 대외직접투자의 전개와 현황
- III. 대외직접투자의 목적
- IV. 대외직접투자의 성과
- V. 결 론

I. 서 론

경제외교는 대외정책상에 있어서 일국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당해 국 정부가 자국의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수행하는 대외교섭의 한 방식이라 정의된다. 경제외교의 주요수단으로는 정부개발원조와 대외직접투자, 기술협력, 통상 등이 있고 과거에는 개발원조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국제경제의 범세계화(Globalization)로 대외직접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경제외교는 일본과 같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으나(山本武彦 1991, 157),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제한된 국가에게(한승주 1992, 477) 매우 유용한 정책이고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파워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질서의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¹⁾ 일본은 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세계최대의 개발

* 고려대학교 강사

1) 평화헌법의 개정움직임과 자위대의 PKO활동, 엔차관의 공여와 정부개발원조(ODA)의 대폭증액,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증가,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노력, 미국과의 방위 분담증가 등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새로운 일본의외교정책의 방향 전환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이다.

원조(ODA) 공여국과 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하였는데²⁾ 특히 동남아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가 일본의 국제적 역할의 증대에 있어서 다른 어느지역보다 가장 잘 나타내주는 척도(indicator)가 되고 있어서(Deborah L. Haber 1990, 892-896) 일본이 세계적인 지도국가나 지역패권국가로 되려면 먼저 동남아지역에서 지지와 추종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베트남이 1995년에 아세안에 가입하였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도 곧 가입할 예정으로 있는 동 아세안의 확대개편이 이루어져 그 정치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세안이 고도경제성장과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으로 국제적 생산기지와 새로운 상품수입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인도차이나 국가들도 아세안의 경제성장에 자극받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경제발전의 도미노현상이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에게 있어서 동남아는 자원공급지, 무역의 수송로, 투자시장,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돼 왔고 일본은 동남아국가들에게 상품수출시장과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의 공여국으로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였다.(上智大學アジア文化研究所 1993, 248-250) 그러나 인도차이나의 공산화이후 이 지역의 안보·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동남아지역이 지리적으로 일본에게 가장 가까울뿐만 아니라 사할적인 중요자원과 석유의 수송로이고 1,000마일방어와 전수방어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Newsweek, November 15, 1993, 12-13) 이러한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경제외교정책에서 초기에는 정부개발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대외직접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외교에 관한 연구는 개발원조에 초점을 맞추었고 대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소홀히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경제외교정책을 대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의 목적과 배경, 대외직접투자를 통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외직접투자의 전개와 현황

1. 전개과정

2차대전후 일본의 동남아정책은 1950년대전반부터 요시다(吉田)독트린를 중심으로 보상을 통한 경제외교를 전개하였다. 1960년대후반부터는 이 지역에 대한

2) 1960년대 일본의 ODA 실적은 미, 영, 불, 서독에 이어 5위를 기록하였으나 70-80년대 초에는 영국을 제치고 4위, 86년이후에 미국에 이어 2위, 8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로 되었고 직접투자에서도 85년 플라자합의의 엔고로 급증하여 현재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西垣昭 외, 1993).

미국정책의 변화로 일본은 동남아의 경제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ADB(아시아개발은행)와 ASPAC의 창설 등에 관여하였으며 77년 8월 후쿠다(福田)독트린 이후 아세안에서의 적극적인 정치·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산업연구원 1993, 3-4)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경제외교정책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1단계(1952-1964년)에서 패전국 일본은 1951년 9월8일 미국의 태평양방위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강화조약에 조인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결정적인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外務省外交史資料編 1979, 237) 강화조약체결후의 미·일·동남아의 3각관계는 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공업생산력 그리고 동남아지역의 자원을 연결시킴으로서 동남아에 있어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기반을 굳히려는 미국의 의도와 경제면에 있어서의 국제사회 복귀의 진로를 설정한다는 일본의 의도가 부각되었다. 일본정부는 규정에 따른 배상교섭을 추진하여 1951년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시작으로 20년간에 걸쳐서 총 10억달러를 지불하였다. 현금지급보다는 국내에서 엔화로 조달이 가능한 자본재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외화의 유출없이 이루어졌고 자본재수출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일본상품의 안정적 해외시장확보와 수출확대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기업의 직접 투자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에 주력하였고 일본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외환보유고가 적어서 해외투자를 할만한 여력도 없었고 일본정부도 이를 억제하였다.

제2단계(1965-1973)에서는 일본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세도에 올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막대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동남아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원조를 시행하였다. 또 외환과 해외투자에 대한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직접투자를 장려하여 일본기업의 동남아지역에 대한 해외투자가 급증하였으나 대다수가 풍부한 천연자원의 확보와 노동집약산업의 진출로 현지산업들과 마찰을 빚어 반일감정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직접투자증가는 일본경제의 급성장에 기반하는데 1965년에서 1970년에 이른 6년동안의 실질 GNP성장율이 10.5%를 기록했고 1968년에는 일본의 GNP가 서독을 능가해서 미국다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또 무역수지가 중화학 제품의 수출증가에 따라 1972년에는 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급증하여 1972년말에는 183억달러로 세계 2위가 되었다.

제3단계(1974-1984)로 74년 1월 다나카(田中)수상의 동남아방문시 대규모 반일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는 일본이 자원확보와 수출시장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여 적극 진출한 결과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정부는 이에

충격을 받아 원조와 투자에서 질적인 향상을 피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직접투자는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사회간접시설이 잘 정비되고 적극적인 투자유입정책을 전개한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였는데 필리핀의 경제악화와 정국불안으로 인해 일본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제4단계 (1985-1994)로 이 단계에서 일본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되었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에 대해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여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되어 타국들로부터 국제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할 것과 무역흑자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1985년 9월22일 뉴욕에서 열린 G-5의 플라자합의에서 엔고가 결정되어 1985년 1월 1달러에 242엔하던 환율이 1986년 7월에 155엔으로 대폭 절상되어 일본기업들이 동남아국가들에게 현지공장을 세워 환차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여 동남아의 수출증대와 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정부개발원조와 대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을 누르고 제1의 공여국으로 되었고 특히 아세안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일본과 아세안과의 경제통합이 더욱 심화되었다. 베트남 등의 인도차이나도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자극받아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동아시아전역에 경제발전의 열기가 확산되었다.

〈표 1〉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단위: 백만달러, %)

회계연도	총액	북미	유럽	중남미	아시아	NIES	아세안	중국
1984	10,155 (100.0)	3,544 (34.9)	1,937 (19.1)	2,290 (22.6)	1,628 (16.0)	809 (8.0)	681 (6.7)	114 (1.1)
1989	67,540 (100.0)	33,902 (50.2)	14,808 (21.9)	5,238 (7.8)	8,238 (12.2)	4,900 (7.3)	2,752 (4.1)	349 (0.6)
1990	56,911 (100.0)	27,192 (47.3)	14,294 (25.1)	3,628 (6.4)	7,054 (12.4)	3,355 (5.9)	3,242 (5.7)	349 (0.6)
1991	41,584 (100.0)	18,823 (45.3)	9,371 (22.5)	3,337 (8.0)	5,936 (14.3)	2,203 (5.3)	3,083 (7.4)	579 (1.4)

출처: 日本大藏省, 1992, 『經濟白書』.

그러므로 일본은 경제외교정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에서의 UN PKO활동의 참여 등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고 인도차이나의 경제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다. 위의 도표 <표 1>에서 보듯이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정부원조보다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고 단순한 자원확보나 일본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산업의 이전이 아닌 엔고와 무역마찰의 심화로 인해 미국, 유럽에 대한 우회수출기지로써 전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등 대기업들이 적극 진출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종합상사, 은행, 백화점 등 전분야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행해져 투자의 성격, 질, 규모 등에 있어 완전히 판이한 양상을 보였다. (Business Week, November 11, 1991, 33)

2. 현 황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도표 <표 2>에서 보듯이 92년까지의 누계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였고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세안국들에 대한 투자실적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기준으로 제조업이 가장 높았고 광업이 그 다음으로 이들 두 부문이 일본의 대아세안 투자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건수기준으로는 제조업, 상업, 농림어업의 순이다. 투자실적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광업과 농림어업 등 자원관련산업은 단연 인도네시아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금융·보험업, 상업 등 서비스산업은 싱가포르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2> 일본의 아세안 직접투자 추이(단위: 백만달러)

국가별	1975-80	1981-85	1986-88	1990	1992
인도네시아	3,234(60)	4,000(62)	1,381(27)	1,105	1,676
말레이시아	400(8)	475(7)	708(14)	725	704
태국	202(4)	364(6)	1,233(24)	1,154	657
필리핀	424(9)	278(4)	227(5)	258	160
싱가포르	714(14)	1,332(20)	1,543(30)	840	670
합계	4,974(100)	6,449(100)	5,092(100)	4,082	3,867

출처: 日本大藏省, 1993, 『財政金融統計月報』

아세안투자현황을 건수기준으로 보면 전기·전자부문이 가장 높고, 화학, 1차금속 및 금속제품, 섬유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식·음료, 섬유산업 등 경공업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고 목

재·펄프업종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도 비교적 많았다. 기술집약적 업종인 일반기계산업과 전기·전자산업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에 많이 투자되었으며, 수송기계산업은 아세안역내 산업협력의 주대상인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국들에 비교적 고르게 투자되었다.(산업연구원 1991, 55-59) 1993년도 일본의 아세안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태국이 27억 500만달러로 1위, 인도네시아가 8억 3,600만달러, 말레이시아가 6억 1천만달러, 필리핀이 1억 1,2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아세안 직접투자를 국가들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 자원개발투자로 인도네시아와 부르네이가 해당한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1992년 현재 총 130억 6800만달러를 투자하여 최대의 직접투자국이 되었고 무역, 기술 등 교역과 경제협력면에서 최대의 경제교류국이고 현재 수하르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정책에 일본의 자본과 기술은 필수적이다.

〈표 3〉 1967-92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투자 누계

순위	국가	금액
1위	일본	130억 6800만달러
2위	홍콩	53억 3700만달러
3위	대만	39억 3600만달러
4위	한국	29억 6400만달러
5위	미국	27억 1600만달러
6위	영국	24억 5300만달러
7위	네덜란드	22억 5500만달러
8위	싱가포르	20억 5900만달러
9위	독일	18억 6500만달러

출처: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다른 한편 일본도 대량의 원료,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를 인도네시아로 부터 수입하여 일본의 자원외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직접투자로 인도네시아는 수출증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했는데 1981년-1984년 기간중에 총수출에서 석유비중이 75%였으나³⁾ 1989년에는 40%로 하락하였고

1992년의 수출액은 339억달러에 달했다.(산업연구원 1994, 16) 80년대 후반부터 수출에서 일차산품의 비율이 저하되고 공산품이 금액과 비율면에서 상승하였다.⁴⁾ 인도네시아는 지난 20여년간 6%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고 94년부터 제2의 경제도약기를 맞고 있다.⁵⁾ 성공요인은 권위주의 체제에 의한 정치안정, 외국유학 출신의 유능한 행정관료,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에 기인한다. 부르네이에 대한 일본의 투자로는 현재 일본의 미쓰비시가 부르네이셀과 함께 세계최대의 LNG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550만톤의 생산량을 일본이 구매하여 7척의 정유수송선단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반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부르네이에 대한 직접투자도 매우 적는데 이는 적은 인구로 인한 좁은 시장규모, 싱가포르등 주변 아세안국가들에 필요한 물자, 상품을 의존하고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의 투자로는 일본의 유통업체인 야오한과 도리시마(飛島)건설 등이 투자하고 있고 석유이외의 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표 4〉 1993년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투자국 순위(승인기준)

1위	일 본	26억	8200만달러
2위	대 만	21억	1900만달러
3위	싱가포르	9억	1100만달러
4위	영 국	7억	6400만달러
5위	홍 콩	3억	5200만달러

출처: 말레이시아 공업개발청(MIDA)

둘째, 현지생산투자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해당된다. 말레이시아는 폭넓은 경제적 기반, 높은 수준의 GNP, 비교적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율을 보이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하나 석유, 천연가스,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

3) 인도네시아는 세계 14위의 석유산유국이고 석유는 인도네시아의 외화획득에서 아직 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U.S. News & World Report, December 21, 1992, 73)

4) 인도네시아 비석유수출의 80%가 제조업수출이고 88년 1배럴당 15달러에서 89년 이후 1배럴당 17달러를 유지함에 따라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Gorden R. Hein 1990, 221)

5) 이는 1985년 4월 해운과 세관의 개혁, 86년 5월 수입과 투자의 규제완화, 1986년 10월 25일 329품목의 수입자유화, 306품목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어 해외투자의 유입이 대폭 증가하여 수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데 기인한다. 인도네시아정부는 89년 11월 바탐섬을 생산품 100% 수출조건으로 외국투자에게 개방하였다.

다. 일본의 말레이시아 투자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제1단계는 72년에 전자부품과 섬유 등 노동집약산업에 진출하였고 2단계는 1980-83년에 건설분야에 편승하였고 3단계는 86년 엔고이후 전자산업이 적극 투자하였다.⁶⁾ 도표 <표 4>에서 보듯이 일본은 1993년 말레이시아에 26억달러의 직접투자를 기록하여 최대의 투자국이다.

<표 5> 태국에 대한 외국투자현황

년 도	일 본	미 국
1991년	17억 9600만달러(142건)	11억 5400만달러(51건)
1992년	19억 9900만달러(88건)	12억 5300만달러(29건)
1993년(6월까지)	18억 6500만달러(32건)	8억 8000만달러(15건)

출처: Bank of Thailand

일본의 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자동차⁷⁾,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회사들과 연관기업까지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백화점, 은행, 종합상사, 건설업체들도 진출하여 현재 태국에는 일본의 2,000여 기업과 공장이 진출하고 2만 5천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도표 <표 5>에서 보듯 태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있어서 미국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최대의 투자국이다. 1993년의 엔고는 일본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태국에서 도시바(東芝), 마쓰시다(松下電氣) 등 일본가전메이커의 생산증가로 하청업체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직접투자는 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일본기업의 투자가 1980년대 전반까지는 현지시장지향형, 수입대체형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엔고에 의해 무역마찰을 피하기위해 또 태국정부의 산업정책전환에 의해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지향산업으로 중점이 옮겨가자 일본이 생산거점으로 전환하여 100%의 소유형태의 투자가 급증하였다. 일본기업들의 직접투자가 태국의 고용창출, 수출소득, 기술이전, 후방관련효과등 파급효과를

6) 마쓰시다, 히다치, NEC, 도시바, 후지스, 미국의 휴렛패커드, Texas Instrument, 인텔, 모토롤라 등이 적극 진출하였다. 전자산업진출의 주된동기는 말레이 여성노동력의 우수성과 저임금이 말레이시아를 세계시장지향의 전기·전자산업의 생산기지로 변모시켰다.

7) 도요타, 혼다, 이스즈자동차회사가 태국에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로 삼고 있으며 특히 도요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을 방콕에 모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28, 1988, 74)

가져왔으나 기술이전효과는 미흡한 편이다.

셋째, 대외투자부진국으로 필리핀이 해당된다. 아래 도표 <표 6>에서 보듯이 일본의 필리핀에 대한 직접투자는 1975-80년에는 4억 2,400만달러로 활발하였으나 1981년 이후에는 매우 부진하였다.

<표 6> 필리핀에 대한 외국투자(BIO인가: 백만달러)

1975-80년	4억 2400만달러(9건)
1981-85년	2억 7800만달러(4건)
1986-88년	2억 2700만달러(5건)
1989년	2억 200만달러
1990년	2억 5800만달러
1991년	2억 300만달러
1992년	1억 6000만달러
1951-92누계	19억 4300만달러

출처: 日本大藏省, 1993, 『財政金融統計月報』.

이는 1972년 마르코스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반정부인사를 구속하고 강압적인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차관과 대외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일본의 대필리핀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필리핀의 정치·경제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 필리핀이 누적되는 외채문제로 지불정지선언(Moratorium)을 하게되었고 2차석유파동으로 인한 석유수입가의 폭등 과 필리핀의 주력수출품인 원자재의 국제가가 폭락하여 극심한 경기침체를 맞이하였다. 또 정치면에서도 1983년 8월 아퀴노전상원의원이 마닐라공항에서 피살되자 진상규명을 둘러싼 반정부활동이 증가하였고 국제여론이 악화되어 미국 등 서방국들은 필리핀에 대해 신규차관을 중단하였다. 필리핀내에서도 공산계렬라인 신인민군의 준동 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을 빚게되자 일본기업들이 이를 불안하여져 직접투자를 대폭 감소시켰다.

넷째, 대중진국(NIES) 투자로 싱가포르가 해당되는데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은 대미수출을 지향하고 있지만 일본의 내수시장확대로 싱가포르의 대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林華生 1993, 95-101) 1975-80년의 일본의 투자는 7억 1,400만달러였으나 1981-85년에는 13억 3,200만달러에 달하였고 1951-1989년 3월에 이르는 총누계액은 38억 1,200만달러로 일본의 대아세안 총투자액의 20%

를 차지하였다. 다른 아세안국들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주로 자원개발이나 섬유 등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NIES국가로 일본의 투자도 전기, 반도체, 기계부문과 금융·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표 7〉 1992년 싱가포르에 대한 대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총액수	27억	3300만달러
미 국	12억	140만달러
일 본	8억	5800만달러
E C	5억	3600만달러

출처: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III. 대외직접투자의 목적

경제외교는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수행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동휘 1992, 569-170) 경제외교의 기능으로는 첫째, 한 국가의 보유자원과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필요자원의 겹을 메꾸어 주는 것으로, 천연자원의 수입과 외채 및 기술도입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한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영역의 확보로서 새로운 상품시장의 개척, 투자대상국의 모색노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국가간에 상충되는 경제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통상문제의 해소를 위한 쌍무협상 등 국가간 마찰의 소지를 최소화 나가는 상호의존성의 관리능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환경보호의 국제규약화로 점차 강화될 무역규제조치에 사전대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제외교는 인도적 배려와 아세안각국의 경제력 강화와 대일경제관계의 긴밀화라는 상호의존관계의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山田俊一 1993, 218) 특히 아세안에 대해 일본정부와 기업은 전시중의 현지수탈이라는 과거의 유산때문에 명분상 경제협력을 통한 아세안발전에 상당히 협조적이며 과거의 진출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기업경영문화를 적극 이식하려고 노력하였고 일본기업의 현

지화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 대외직접투자의 목적을 크게 경제적 목적, 정치적 목적, , 사회·문화적 목적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적 목적

일본의 경제외교정책에서 직접투자는 원래부터 민간기업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진출하지만 일본기업이 해외로 직접투자를 하게될 때 그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자재를 반드시 일본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이들 부품 및 원자재류에 대한 해당 국가에로의 수출촉진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집중적으로 수입하거나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에서 대일과생유입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종운 1991, 107) 정부개발원조도 실제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보다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에 더 민감하게 움직여 왔고 특히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개발원조는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일본상품의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엔차관의 공여로 실시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등에 일본기업들이 대다수 입찰되고 소요되는 주요 설비, 자재, 상품 등이 일제이다. 전후 50년대 배상협력이 주로 일본상품, 건설장비 등의 현물로 공여된 것도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チュラチ-プ・チンワノ 1988, 176-177)

일본기업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의 목적은 우선 풍부한 천연자원과 수출시장의 확보에 있다. 이는 국내에 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좁은 일본이 대외무역에 의존함으로써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였고 따라서 석유, 천연가스, 코우크스, 주석, 구리, 고무, 원목 등 동남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직접투자가 일찍부터 행해졌다. 일본은 주석의 99%, 천연고무의 99%, 천연가스의 49%, 목재의 42%, 구리의 33%, 석유의 18%를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일본상품의 수출시장으로서 특히 기계류 등 자본재의 수출이 활발하고 80년대후반부터 일본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동남아경제의 일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다.

둘째, 우회수출기지로서의 기능이다. 1970년대부터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로 인하여 미국, 유럽 등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 시장개방의 압력과 선진국들의 일본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자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를 통한 우회수출기지의 전략을 추진하였다. 특히 엔고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되고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자 동남아를 생산거점으로 일본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대대적으로 동남아에 투자하여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생산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무역마찰의 완화와 수출증대를 꾀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과 동남아의 경제분업구조가 형성되어 경제통합이 가속

화되고 있다.

2. 정치적 목적

경제외교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경제적 도구인데 리차드 올슨(Richard Olson)에 따르면 해외투자의 감축, 쌍무적 및 다자간의 차관과 신용대부의 단절이나 감축, 현존부채에 대한 재용자의 저절 등의 조치가 개도국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정치적 긴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투자의 규제나 원조의 중단, 삭감을 통해 수원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외교적 압력행사의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80년대에 들어와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부담과 역할증대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자 정부주도의 개발원조를 늘리면서 기업들의 대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역안보 및 다국화조류에 따라 아·태지역에서의 지역협력체의 추진과 새로운 동맹관계의 모색을 통해 지역내 리더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동남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일간의 역할분담(burden-sharing)에 대한 공조체제의 형성과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증대의 일환으로 외환규제의 완화, 직접투자의 장려, 개발원조를 통한 직접투자의 촉진 등 긴밀한 관민협력으로 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영향력도 증대하여 이들 국가들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과 캄보디아의 자위대 파병 등 국제적 역할증대에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3. 사회·문화적 목적

사회·문화적 목적은 일본이 직접투자의 증대에 힘입어 일본의 민간기업과 정부가 긴밀한 관민협력, 사회·문화교류 등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반일감정을 완화하며 일본의 국제역할증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각지에 일본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일본어학습 및 일본문화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각 대학에 장학금을 제공하여 일본유학을 장려하고 동남아와 일본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또 일본은 세계각지의 공업화에 의해 환경의 오염, 악화 등이 최근들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자 일본은 환경분야에서 축적하고 있는 고도의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IV. 대외직접투자의 성과

1.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일무역마찰의 회피

일본의 동남아를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활발한 직접투자의 결과로 1993년 일본의 총 무역흑자 1,219억달러중 대아시아 흑자가 559억달러로 511억 달러의 대미흑자를 처음으로 추월하였고(*Time*, February 22, 1993, 14) 아세안에 대한 투자로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 1991년도의 아시아에 대한 현지 투자이익이 4,870억엔(37억달러)였는데 대유럽 투자이익은 66억엔, 대북미투자는 2,080억엔의 손실을 기록해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순이익을 보증해준다. (*Economist*, April 24, 1993, 79) 또 일본기업은 엔고로 해외생산의 확대로 저렴한 가격의 대량판매정책으로 인해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현지투자의 과실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음향기기메이커인 아이와(AIWA)의 경우 1993년의 경영이익이 전년보다 2배나 증가하여 1993년 10월 15일 중간결산에서 엔고의 영향으로 매출이 5.8%증가에 그쳤으나 경상이익이 99.7%나 급증하였다. 이는 해외생산을 크게 늘려 원가를 낮추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판매한 결과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4개의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려 1993년 3월에서 9월까지 해외생산비율을 66%에서 72%까지 높은 결과에 힘입어 이익이 증가한 것이다.

2. 동남아에서의 반일감정의 완화

1974년 1월초 다나카(田中)일본수상이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을 차례로 방문했을때 각지에서 격렬한 반일시위가 일어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폭동으로 번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⁸⁾ 이렇게 반일감정이 일어난 것은 일본의 원조와 직접투자에 의한 경제진출이 아세안국가들의 국내산업을 크게 잠식하여 피해의식을 야기시켰고 대일무역적자의 확대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 또 일본의 경제진출이 각국정부의 지배층인 군부 및 관료와 연계하여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구조가 심화되었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의 특권층에 돌아가고 다수의 농민과 일반국민들은 빈부격차의 증대, 농촌의 폐쇄,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생활조건이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불만에 대해 아세안각국정부가 권위주의독재체제로 강압적으로 이를 탄압하자 다나카수상의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내재해왔던 반일감정과 민족주의, 정

8) 비교적 온건한 싱가포르에서도 학생대표가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일본의 경제진출방식에 대한 요망서를 전달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에 투석하고 군대가 발포함으로써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등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820명이 체포되었다.

부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뒤섞여 폭발한 것이다.(Newsweek, January 28, 1974, 8)

일본의 공해산업진출에 따른 환경의 악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의 무분별한 열대림의 남벌은 반일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 일본의 경제진출이 아세안정부의 군부인사와 고위관료 등 특권층과 정경유착으로 연계하여 다수국민의 불만을 초래하였다.(Japan Times, November 23, 1993) 그리고 현지에서 일본사업가들의 비행이 반일감정을 악화시켰는데 일본인들이 아세안인들을 무시하고 인종적 우월감을 갖고 야만인 취급한다는 불만, 또 아세안의 관광산업도 일본인들의 단체항라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 아세안의 환경이나 자원, 문화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자기들 일본인들끼리만 놀고 현지인과 친밀한 동류위식이 없다는 불만이 컸다.⁹⁾ 일본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익의 확보에만 급급하고 또 아세안상품에 대해 수입할당제와 높은 관세장벽으로 수입을 봉쇄하여 대일적자가 심화되어 일본이 아세안의 경제를 지배하려 한다는 우려가 반일감정을 증폭시켰다.(스라크·시프락크外 共著 1986, 63-67) 이러한 반일시위의 여파로 아세안각지에서 일본의 원조와 투자진출에 경계하게 되었고 일본기업도 투자를 줄여서 경제진출이 약화되었다.¹⁰⁾

〈표 8〉 아세안각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1980-84	1985	1987	1990	1992
인도네시아	4.8	2.5	4.8	7.0	6.6
말레이시아	6.9	-1.0	5.3	9.4	8.7
싱가포르	8.5	-1.6	8.8	8.3	6.5
필리핀	1.4	-4.3	1.4	2.5	4.1
태국	5.9	3.5	8.4	10.0	8.0
아세안평균	5.1	0.8	6.0	7.2	6.9
NIES 평균	6.7	5.0	6.0	6.6	6.2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July 1993.

9) 태국의 경우 73년 2억달러의 대일적자를 기록하였고, 말레이시아도 72년까지 대일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73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10) 태국은 74년 8월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일본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되었고 9월에는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그룹이 석유컴비나트의 참가를 연기하였다.

그러나 1991년 9월말과 10월초에 걸쳐 일본의 아키히도(明仁)왕과 미치코왕비가 즉위후 처음으로 해외순방길에 올라 11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국가들을 방문하였는데 반일시위와 폭동 등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아세안 각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를 환영하는 무드였다.(Newsweek, October 14, 1991, 22) 이것은 1974년이후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경제외교정책이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다나카수상의 방문시 반일감정의 폭발에 충격을 받은 일본정부와 기업이 직접투자의 증대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수출진흥,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기회의 확대, 중산층의 배양과 정치적 안정, 소득수준의 향상과 구매력의 증대 등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3, 1991, 32) 아키히도 일왕부처가 방문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3국과 일본과의 교역규모가 1990년 420억 달러로 일본과 EC간 교역의 반에 육박하였고 아세안각국은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앞의 도표 <표 8>에서 보듯이 아세안국가들은 1989-90년에 걸쳐 7-10%대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자본 등 막대한 해외투자의 유입과 아세안각국의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에 기인하는데 한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NIES의 경제발전계획을 모방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고쳐 실행하였기때문이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진출로 인한 고도성장으로 아세안은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환경파괴 등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었는데 정신적·문화적 퇴폐를 낳았고 급속한 도시화로 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였다.(田村正勝 1991, 17-18) 그렇지만 아세안국민들은 일본의 직접투자에 의한 경제발전의 성과가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고 인식하였고 이것이 반일감정의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3. 일본에 대한 호감의 배양

일본정부와 기업은 74년의 다나카수상의 방문시의 반일시위에 충격을 받아 그후 아세안에 대한 경제원조 및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인적교류, 사회·문화적 유대관계를 통하여 아세안내에서 반일감정을 완화하고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노력해왔다. 1982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수상이 일본을 모델로 동방정책(LOOK EAST)을 실시하였고 일본의 경제진출과 아세안의 경제발전으로 이 지역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일본식 문화, 일본어학습, 일본의 백화점들이 성황을 이루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Business Week,

November 11, 1991, 33) 1987년과 88년에 일본의무성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5개국에서 2차대전중의 일본인 행동, 일본인에 대한 신뢰성, 일본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차대전중의 일본인행동에 대해 아세안 5개국이 인도네시아의 63%에서 말레이시아의 70%에 이르기까지 응답자의 2/3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일본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의 76%에서 필리핀의 92%에 이르기까지 대다수가 호감을 갖고 있고 일본기업의 투자확대에도 태국의 85%에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93%에 이르기까지 아세안인들의 대다수가 찬성을 표시하였다. (『週刊 東洋經濟』, 1992年 5月 22日) 이같이 아세안국민들에게 일본은 경제개발과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준 나라로 인식되어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아세안의 지식인들가운데는 “일본은 제품을 팔려하지 기술이전에는 관심이 없고 대일무역적자가 심각하여 일본편향에서 벗어나야”하는 비판도 있으나 일본인의 친절, 근면성, 실력제일주의, 조직우선 등을 배워서 아세안의 미래에 발전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훨씬 우세하다. (『조선일보』, 1993년 10월 21일) 이것은 일본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어느정도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지역적 역할의 증대: 자위대의 캄보디아PKO활동

일본은 이러한 일본기업의 동남아에 대한 활발한 대외직접투자를 기반으로 반일감정의 불식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할을 행사를 도모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의 내전종식노력과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역할확대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를 파병하였고 이 지역에서 긍정적 인식을 심는데 주력하였다.

1978년말에서 79년에 걸쳐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행삼린정권을 수립하자 일본은 맹렬히 비난하였고 베트남에 대한 정부원조를 중단시켰다. 또 미국과 서방국들, 아세안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유엔 등에서 대베트남 결의안에 찬성하고 시아누크, 손산 등의 반베트남저항활동을 후원했다. 이는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이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베트남이 인도차이나의 맹주로 등장했음을 의미할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에서 중국과 가까운 폴포트 파정권을 전복시키고 소련 및 베트남과 가까운 행삼린정부를 세워 이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지역역할의 증대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캄보디아 평화해결노력으로 일본은 전후 자주외교의 실천장으로서 건설적 공헌의 방도를 고려하였다. 일본은 1988년 8월에 시아누크공을 동경에 초청

하고 1989년 여름 캄보디아문제에 관한 파리국제회의에 있어서 캄보디아의 난민과 부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의 자리를 획득하는 등 캄보디아문제에 적극적인 관여를 시작하여 90년 6월의 캄보디아국민정부와 헝 삼린정권간의 동경회의에서 결실을 맺었다. 뒤이어 1990년 8월의 UN포괄평화안 발표를 받아 90년 9월 초순 자카르나회담에서 캄보디아의 4파가 UN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크게 진전되었다. (*Japan Times*, May 2, 1991) 캄보디아분쟁의 종언은 91년 10월의 파리회담에서 있었고 SNC를 둘러싼 대립이 해소되어 그 본부를 프놈펜에 설치하는일, 외국인조의 중지, 무기한 정전의 합의와 유엔안의 수락이 이루어졌다. (須藤秀夫 1992, 25-26) 일본의 캄보디아사태 개입에 대한 아세안의 반응을 살펴보면 태국이 가장 환영하였고 다른 아세안국들도 지지를 표시하였다. (添谷芳秀 1991, 31-39) 일본의 캄보디아정책의 배후에는 일본이 탈냉전기의 질서의 안정화에 공헌하기 위해 일소간의 영토문제,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대립과 함께 캄보디아분쟁해결을 위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자위대의 PKO활동은 93년 6월 15일 국제평화협력법의 성립에 따라 93년 9월 17일 이후 캄보디아 파견시설대대가 일본을 출발하여 10월 14일 600명이 현지에 집결을 완료하였는데 육상자위대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PKO활동의 의의로 일본의 방위백서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에 있어서의 국제평화협력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평화협력법의 제정후, 최초의 조직적인 활동이며 일본의 국제평화에 대하여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고 한다. 캄보디아문제해결에 일본의 기여는 아시아의 정치·안보분야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행사를 장려하는 것이고 귀중한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Japan Times*, November 4, 1993) 일본은 17억달러의 평화유지에산중 12.5%를 부담하였고 아카시 야스시(明石)가 유엔대표로 활약하였는데 캄보디아사태가 해결되어 일본 자위대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일본의 국위가 선양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Time*, November 2, 1992, 20-23)

V. 결론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60년대까지 미국에 거의 종속되었으나 70년대에 들어와 데탕트와 경제력으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게 되었고 그 대상이 동남아 지역이었다. 그러나 미일군사조약과 미국의 핵우산 등으로 사용수단이 제한되어 자연히 개발원조와 대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한 경제외교를 전개

하였다. 특히 1980년에 들어와 개발원조보다 대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대외직접투자를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목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목적은 최고의 정책목표로 일본경제를 위한 자원과 시장의 확보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직접투자의 증대로 자원이나 시장의 확보가 아닌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적 생산기지로 전환되었고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전략으로 기능하였다. 정치적 목적은 군사력이나 국제정치적 파워가 결여된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지역적 역할의 증대를 꾀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의 PKO활동 등을 통해 책임있는 국제적 역할의 수행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주력하였다. 사회·문화적 목적은 일본이 직접투자의 증대와 상호교류의 확대, 민간기업의 사회문화활동 지원 등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의 조성, 역할증대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여론의 형성을 돕는 것이다.

일본의 대동남아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9월 플라자합의로 급격한 엔고가 진행되자 일본기업들이 무역마찰의 회피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이 싸고 노동력이 풍부한 아세안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크게 늘렸고 종래의 노동집약산업의 진출에서 국제적 분업체제의 일환으로 전자, 반도체, 기계 등 첨단산업이 진출하여 미국과 유럽 등과의 무역마찰을 경감시켰고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시켰다. 여기에 따라 외교정책에서도 동아시아중심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대동남아시아 무역흑자가 대미무역흑자를 초과하였다. 한편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증대, 수출촉진,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등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반일감정의 완화와 지역적 역할의 증대를 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1991년 9월말과 10월초에 걸쳐 아키히토(明仁)일왕이 아세안을 방문했을때 별다른 반일감정없이 환영무드속에서 순방을 마쳐 일본의 대아세안 경제외교가 아세안국가들에게 일본에 대한 호감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캄보디아평화해결노력에 적극적으로 간여한 것은 큰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즉 종래의 경제외교만으로는 추구하는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였으나 일본의 정치·안보역할의 증대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반대와 경계심 등으로 정치·군사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캄보디아의 UNTAC활동을 통해 안보·정치적 역할의 증대를 꾀하여 군사적 활동에 대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보았고 재정적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인정받는 등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대외직접투자의 증대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한국도 1989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의 임금인상과 노사분규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고 무역흑자가 급증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의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가입, 베트남, 라오스 등과의 수교, OECD 가입움직임 등 한국의 국제적 역할의 증대에 새로운 시험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인과의 노사분규 등 마찰증가, 이 지역출신의 한국내 취업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일본처럼 긴밀한 국민협력으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역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 외교정책에서도 사활적인 이해는 공유하고 있지 않으나 다변화외교와 지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남방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 1991. 『한·아세안간 산업협력의 전개방향』.
———. 1994. 『일본의 아세안진출경로와 유형』. 1993-87.
———. 1995.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1995-05.
- 이동휘. 1992. “한국의 경제외교.”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 이종윤. 1991. “일본경제의 발전과 그 발전전략.” 『계간사상』. 1991 여름.
- 한승주. 1992. “일본의 외교정책.” 『현대국제정치별쇄본』. 서울: 나남.
- 西垣昭·下村恭民(니시카기 아키라·시모무라 야스다미). 1993. 『開發援助の經濟學』. 東京: 有斐閣.
- 田村正勝(다무라 마사가츠). 1991. “變貌する東アジアと日本の立場.” 『世界經濟』. 1991年 3月.
- 林華生(림화싱). 1993. 『ASEAN經濟の地殻變動』. 東京: 同文館.
- 山田俊一(야마다 슌이치). 1993. “アセアン諸國への日本の經濟協力.” 『アセアンの經濟・日本の役割』. 東京: 有斐閣.
- 山本武彦(야마모토 다케히코). 1991. “經濟外交.” 『講座國際政治: 日本の外交』.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チュラチブ·チンワノ(추라치프 친와노). 1988. “東南アジアにおける日本の役割.” 『日本とASEAN』.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 須藤秀夫. 1992. “變動期の東南アジアとASEAN.” 『外交時報』. 1992年 3月. 25-26.
- 外務省外交史資料編. 1979. 『日本外交史事典』. 東京: 外務省.
- 歴史教育者協議會. 1994. 『東南アジア』. 東京: 青木書店.
- 上智大學アジア文化研究所. 1993. 『入門東南アジア研究』. 東京: めんこ.
- 大藏省. 1992. 『經濟白書 1992』.
———. 『財政金融統計月報』.
- 添谷芳秀. 1991. “カンボジア和平と日本-ASEAN關係.” 『國際問題』. 1991年 11月. 31-39.
- アジア經濟研究所. 1991. 『アジア動向報 1991』.
- Asian Development Bank, 1990. *Key Indicators*. July 1990.
- Haber, Deborah L. 1990. “The Death of Hegemony: Why Pax Nipponica is Impossible.” *Asian Survey*, September 1990.
- Hein, Gordon R. 1990. “Indonesia in 1989: A Question of Openness.” *Asian*

Survey, February 1990.

『조선일보』

『週刊東洋經濟』

『朝日新聞』

Asiaweek

Business Week

Economis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pan Times

Newsweek

Time

U.S. News & World Report